

# 제418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제 12 호 (정기회)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 김원이 위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개회 요구에 따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양당 간사 위원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역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회의를 소집하신 민주당의 김원이 간사님, 회의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김원이 위원 예, 저희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아마 대동소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원이 간사님 말씀을 듣고 여당 간사에게 전달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 김교홍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철규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말씀 하시고 싶겠지만 아마 간사님이 대표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선 간사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 김원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란, 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번지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기의 징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환율은 지난 금요일 장중 1430원에 유탁했다가 2년 만에 최고치인 141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잇따른 매도로

현재 주가는 2400선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다수 진행되던 기업 주도의 M&A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증시 기업공개를 앞둔 기업들 역시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과 카자흐스탄 국방장관, 스웨덴 총리,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를 포함한 VIP의 방한 일정이 보류되거나 긴급 취소되었습니다. 이 무슨 망신입니까?

내수 부진과 수출 부진이 겹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인데 내란, 계엄 사태로 인해 연말 모임, 여행이 취소되면서 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게 하지 않으려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신속한 탄핵, 즉각적인 대통령 사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적 절차인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법적 심판을 받게 할 때 경제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산자중기위는 민생경제 현안을 쟁기며 경제 리스크에 대응해야 됩니다. 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두 번째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체회의를 개최 요구하였으나 여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리스크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법안심사를 계속 진행해 중단된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당 위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본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서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제자리로, 상임위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축약돼서 전부 다 김원이 간사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김종민 위원 저요? 아니에요.

○김교홍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철규 아니, 잠깐만.

김종민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김종민 위원 예.

○김원이 위원 김교홍 위원님……

○위원장 이철규 잠시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어야 대화도 되는 거고 한데 아마 김원이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개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다 예단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예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진욱 위원 아니,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두 분만 저기 하시면 아마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전부 대변하실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마무리를 김교홍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요. 정진욱 위원님이 먼저부터 손을 들고 하셨으니까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반헌법적인 그리고 반국민적인, 반국가적인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계엄 선포 전후에 우리 산업부장관과 중기부장관이 계엄회의에 참석했는지,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우리 산자중기위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저는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현재 산업부장관은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해서 계엄 해제에 찬성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중기부장관입니다. 중기부장관은 늦게 도착해서 충분한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는 하지만 반대 입장을 정확히 표명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부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찬성이고요. 이 경우에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탄핵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수사 대상이 돼서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하루빨리 전체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위원들까지 함께 참석해서 산자중기위 회의를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교홍 위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이나 박성민 위원을 비롯해서 국힘 위원님들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든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주범이 돼서 상임위에 참석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좀 크고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다른 상임위하고는 다르게,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과 같은 산업계의 실핏줄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탄핵 이전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계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탄핵되면서 더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공화국입니까?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은 대한민국의 지혜와 용기와 우리 국민들의 절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국회의원들이 서로의 당리당략이나 또는 이념, 진영의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산업부장관이나 중소기업부장관을 불러서 지금 현재 상황도 체크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대책, 대안, 방향을 우리는 짚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런데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이런 현안 문제 때문에 이걸 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6일 날 이미 소집을 했다가 무산됐고 오늘도 또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 그 추운

겨울날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발을 떨고 손을 비비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도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다가 결국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계나 경제계를 위해서도 탄핵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여야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지만 여당의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다음번 회의 소집을 또 요청할 겁니다. 그때 반드시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를 논하고 정치가 안정된 국면으로 갈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꼭 전체회의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법안소위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내일 전체회의도 결국은 안건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현안을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 늘 이게 상대가 있는 거다 보니까요, 말씀을 전부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현재,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의 어떤 위원도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조하거나 동의한 위원들이 안 계신다는 것은 명확히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 드립니다. 다만 서로 해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상대 당, 여야 위원 간에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라든가 모욕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님들 세 분의 입장은 다 경청을 했습니다.

교섭단체 외에 위원님 두 분이 오셨는데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은 발언을 아까 안 하시겠다고 했고, 서왕진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 하시면 더 이상……

어떻게, 정회하고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산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여러 차례 양당 간사 협의를 해서 하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양당 간의 간사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 이제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우리 위원회가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직접 추궁하고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비교적 우리는 민생 문제 때문에 우려하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저도 우리가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적극 중재를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또 말씀하시려고요?

○김원이 위원 박성민 간사님이 그래도 전화를 안 받지는 않아서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철규 전화를 받아요? 제 전화는 안 받던데.

○김원이 위원 예, 어제 통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이 너무 어렵다, 좀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인데 이렇게 책

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중기부장관하고 산자부장관이 현장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고생하더라고요. 그게 간간히 뉴스에서 보는데, 지금 이 장관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국민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안정감을 갖고 자기의 삶을 유지할 것 아닙니까?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님도 장관들한테 촉구를 해서, 저도 장관들에게 이 사태로 인해서 민생이, 민생경제가 또 우리 대외 경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는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간사님, 산회하는 게 낫겠지요?

○김원이 위원 예, 일단 산회하는 게 좋겠지요. 산회하시지요.

○위원장 이철규 그래서……

○김한규 위원 그러면 내일도 전체회의를 안 여는 겁니까?

○위원장 이철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 ○출석 위원(16인)

권향엽 김교홍 김동아 김성환 김원이 김종민 김한규 박지혜 서왕진 송재봉  
이재관 이철규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 ○첨가 위원(2인)

곽상언 오세희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